

‘미술공모전’에 대한 단상



홍경안의 시시일과

최근 평론을 작성하기 위해 모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대화 후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 우연히 카탈로그 한 권을 발견했다. 두께가 꽤 되는 그것은 바로 ‘미술대전’ 도록. 국내 수없이 많은 ‘OOO미술대전’이나 ‘XXXX미술제’, ‘△△미술공모전’ 등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 중 하나다.

아무 생각 없이 들춰보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동시대미술 이전의 방식에 기반 낡은 언어들이 즐비한 것도 그랬지만 아마추어 그림들과 학생 수준의 작품들이 우수상이니 특선이니 하는 괴이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운영위원 혹은 초대작가라며 별도로 구성된 작가들의 작품 역시 할 말을 잃게 했다. 소수를 제외하곤 사회적 맥락과 상호 관련 속에서 미술을 바라보는 시선은 커녕 개별적이면서 타인과 공유되는 경험조차 읽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없이 봤다가 결국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된 것 중 하나는 ‘200페이지가 넘는 도록을 만들기 위해 베어진 나무는 무슨

죄인가’였다. 또한 ‘작가들은 대체 왜 이처럼 뒤범벅인 무대에 출몰할까’였다. 그 어떤 공모전도 과거처럼 군 면제 혜택을 주거나 교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가운데 후자에 대해선 여러 작가들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작가들의 다수는 전시 기회가 없어서라고 말한다. 하나 설득력이 약하다. 수없이 많은 국내의 기관이 참신한 작품을 찾고 있으며, 정보력에 따라 기회의 부족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 만든 전시를 통해 화단의 주목을 받은 역대 예술가들의 사례를 우린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는 작품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존중한 결과다.

혹자는 대중이 입상 경력을 높이 본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도 있다. 미술생태와 상의 질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대단하다 여길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미 37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거의 모든 미술공모전을 ‘국전’으로 여기는 세태라면 공모전 입상은 꽤나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예술성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매기는 건 아니다.

그래도 입상하면 뭔가 좀 다르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 있다. 글썫하다. 공모전은 사실상 권위와 공신력, 이미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공모전이나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 미술계에

서그세 요소를 고루 갖춘 공모전은 찾기 힘들다. 솔직히 ‘미술대전’ 형식의 공모전 수상 경력이란 아트페어로 뒤덮인 경력만큼이나 의미 있게 여기지 않는다.

‘OOO미술대전’, ‘XXXX미술제’, ‘△△미술공모전’ 등과 같은 일부 공모전은 대체로 작가들의 자잘한 욕망을 대가와 바꾼 수익사업에 가깝다. 협회나 단체의 세를 과시하거나 존치를 위해 운영되며, 내부적으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초대작가 등을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 미술 권력을 보다 견고히 하는 수단이다.

물론 모든 공모전이 같은 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아마추어들의 신분세탁용’이라는 용도를 제외하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신진작가 등용문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일쑤인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수상하던 떨어지던 자존심만 상하는 공모에 출품료까지 지불하며 목매 필요 없다. 권위, 명예, 성공, 금전적 이득과 아무 상관없다. ‘학지코진’(학연, 지연, 코드, 진영)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상을 주고받는 데다, 심사 받을 사람이 심사하는 공모전이란 그저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공모전에 출품하느라 신경 쓰고 돈 쓰며 엄한 신작 구작 만드느라 그 시간에 그냥 작품 한 점 더 하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다.

/미술평론가 칼럼니스트

완성도와 신기술, 두 토끼 잡아라



기지수첩 안병도 (산업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유명한 대사다. 그런데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1년마다 비슷한 고민을 반복한다.

“신기술이나, 완성도나 뭘 선택해야 할까?”

초기 스마트폰 혁신기간 동안은 신기술이 우세했다. 1년은 커녕 3개월마다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쏟아졌다. 사용자는 기꺼이 비용을 내고 해마다 스마트폰을 샀고 삶에 느껴지는 변화를 즐겼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열광할 만큼의 신기술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술이 주는 부족한 사후지원과 조악한 사용자경험이 남

았다. 당연히 사용자는 그런 스마트폰을 외면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성장을 멈췄다.

일반적으로 안정성만 중시되는 제품은 긴 교체주기를 갖는다. 냉장고나 세탁기를 1~2년마다 바꾸는 사용자는 별로 없다. 스마트폰이 1~2년마다 사용자에게 구매할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신기술이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약간 더 빨라지고 약간 더 용량이 늘어난 것으로는 부족하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신기술을 자제하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은 그래서 틀린 전략이다. 제품에 적합한 이상 신기술이란 당연히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성을 만족시키면 일단 쓸 만한 물건이지만 둘 다 만족시키면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된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산 스마트폰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 안드로이드폰은 똑같은 구글 운영체제를 쓰며

주요 하드웨어 부품 역시 비슷하다. 따라서 안정성만 가진 제품은 중저가 시장에서 단가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신기술을 통해 구매하고 싶은 프리미엄폰을 만들어야 시장을 차지하고 선두업체가 될 수 있다.

글로벌 리더 기업은 신기술과 완성도를 당연히 따라가는 요소로 본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다. 애플은 제품시장 성장이 둔화하면 고가 제품을 통해 매출과 순이익을 늘린다. 이게 가능한 원동력이 완성도 높은 신기술 도입이다.

아직은 국내기업이 안정성을 강화한 제품이라면 달라진 게 없어 실망하고,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한 제품이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동작할까 의심하는 사용자가 많다. 신기술을 대거 도입한 국내 스마트폰 제품을 단지 시연만 보고도 과감히 구매버튼을 누를 수 있었으면 한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자.

/catchrod@metroseoul.co.kr



LH, 강원도에 귀농귀촌인 위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지난 3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과 최문순 강원도시사가 소득형 산촌주택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강원도 소득형 산촌주택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에 귀농·귀촌인을 위해 5만2000㎡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소득창출 시설을 지원해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LH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벡 고려인 마을 지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즈벡스탄 고려인 마을 개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5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1기(60명)는 지난달 30일 ‘현대엔지니어링 해피무브 고려인 빌리지 개발사업’을 위해 우즈벡스탄 현지로 출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국민은행, 대학생홍보대사 ‘KB캠퍼스타’ 발대식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KB캠퍼스타’ 1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허인 KB국민은행장(사진 가운데)이 홍보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증권, 사무금융노조와 사회연대기금 출연 합의 KB증권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2일 KB증권 본사 대회의실에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출연 조인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윤경은 KB증권 사장(왼쪽부터),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동열 사무금융노조 KB증권지부장이 합의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B증권

인사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정보 △ 대구서부지청장 손영산 △ 포항지청장 이정민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46호

◆**세종특별자치시** ◇ 3급 정보 △ 환경복지국장 광점홍 ◇ 3급 승진 △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 4급 정보 △ 충무과장 김동민

부음

▲ **관철교 씨 별세**, 관진희(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씨 부친상, 김기찬(중앙일보 고용노동선임기자·논설위원) 씨, 김형수(대구은행 부산사상지점장) 씨 장인상 = 4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발인 6일 오전 5시. 053-560-9551

▲ **윤병경 씨 별세**, 함용식 씨 부인상, 함수경(통번역사)·미경(주부)·수진(주부) 씨 모친상, 이충우(매일경제신문사 사진기자)·김상

군(통번역사)·서명훈(신동근 의원실) 씨 장모상 = 5일,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 010-2084-3298

▲ **김영산 씨 별세**, 김종환(어썬인테리어디자인 대표)·준환(코도모무역 대표) 씨 부친상, 김은태(전북CBS 기자)·이현기(해와달한의원 원장) 씨 장인상 = 5일 오전 3시 50분,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307호, 발인 7일 오전 8시. 063-859-2310

▲ **서선자 씨 별세**, 주영철·영환(강릉원주대 교수)·영훈(예비역 대령)·영순·영진(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앵커) 씨 모친상·윤재기 씨 장모상 = 4일, 춘천 강원효장례문화원 302호, 발인 7일 오전 7시. 033-261-4441



신세계푸드,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 개최 신세계푸드가 제빵사를 꿈꾸는 보육시설 원생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푸드의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는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기업의 특성을 살려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연간 4회씩 진행되어 온 재능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세계푸드